

賞冊 古小説의 새 자료와 성격

New Data for Korean Old Novels for Lending and Its Characteristics

유 춘 동 (Yoo, Choon Do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2.5 내동 세책점의 세책본
『월하가인(月下佳人)』 |
| 2. 세책 고소설, 새 자료의 서지(書誌)와
성격 | 2.6 장교 세책점의 세책본
『적성의전(翟成義傳)』 |
| 2.1 세책 고소설, 새 자료의 서지(書誌) | 2.7 소정동 세책점의 세책본
『정렬기별춘향가(貞烈記別春香歌)』 |
| 2.2 산림동 세책점의 세책본
『고담낭전(古談囊傳)』 | 2.8 함목동 세책점의 세책본
『한후룡전(韓厚龍傳)』 |
| 2.3 수진동 세책점의 세책본
『금향정기(錦香亭記)』 | 3. 마무리와 과제 |
| 2.4 금호 세책점의 세책본
『도앵행(桃櫻杏)』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글은 새로운 ‘필사본(筆寫本) 세책(賞冊)’ 7종을 소개하고, 각 자료의 성격과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 다룬 필사본 세책은 『고담낭전(古談囊傳)』, 『금향정기(錦香亭記)』, 『도앵행(桃櫻杏)』, 『월하가인(月下佳人)』, 『적성의전(翟成義傳)』, 『정렬기별춘향가(貞烈記別春香歌)』, 『한후룡전(韓厚龍傳)』이다.

세책본 『고담낭전』은 산림동 세책점에서 대여해주던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소설의 형성과 연원, 유통의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세책본 『금향정기』는 수진동 세책점의 세책으로, 방각본 소설을 가져다가 세책본으로 만들어 대여해주었다. 이 자료는 세책본과 경판본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책본 『도앵행』은 금호 세책점에서 대여해주었던 세책으로, 세책본과 여성독자의 문제를 규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세책본 『월하가인』은 내동 세책점의 대본으로, 신소설이 발간된 뒤로 세책점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세책본 『적성의전』은 장교 지역 세책점에서 대여해주던 것이다. 이 자료에 의거해서 현전하는 다양한 장교 세책점의 위상과 특성을 살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세책본 『정렬기별춘향가』는 소정동 세책점에서 사람들에게 빌려주던 세책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 세책본 『남원고사』와의 비교도 가능하며, 『남원고사』 이전의 세책본의 문제를 재구해볼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세책본 『한후룡전』을 살펴보았는데 이 자료는 함목동 세책점에서 빌려주던 세책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 서로 다른 세책점이라 하더라도 본문 텍스트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후 이 자료들의 자세한 검토를 통해서 세책본의 문학사적인 의미는 물론, 출판문화사적 의미가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要語: 세책 고소설, 세책점, 고담낭전, 금향정기, 도앵행, 월하가인, 적성의전, 정렬기별춘향가, 한후룡전

* 선문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sechaek@hanmail.net)

투고일: 2019년 11월 20일 최초심사일: 2019년 12월 9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8일

서지학연구, 제80집, 65-78,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80.6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7 types of newly confirmed ‘manuscript lending of novels’ and take a look at the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data. The manuscript lending of novels that are to be handled under this article are *Godamnangjeon*, *Geumhyangjeonggi*, *Doanghaeng*, *Wolhagain*, *Jeokseonguijeon*, *Jeongryeolgibyeol Chunhyangga*, *Hanhuryongjeon*.

Godamnangjeon for lending was loaned from Sanlim-dong Sechak-jeom (book lending shop). Through this data, the formation of this novel, its origin and chronology, as well as the distribution issues could be confirmed. *Geumhyangjeonggi* for lending is the loan from the Sujin-dong Sechak-jeom that it brought in the Banggakbon (block print publishing) novels to make the rent. This data has its implication in the point that it may take a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uscript for lending and Banggakbon published in Seoul. *Doanghaeng* for lending is the loaned libraries from Geumho Sechak-jeom that it has implication in the point that it may be clarified for issues involving in the publication for lending and women readers. In the meantime, *Wolhagain* for lending is the manuscript of Nae-dong Sechak-jeom that it has its importance in the point that how the Sechak-jeom had been operated since the new novel was published.

Jeokseonguijeon for lending was loaned out from the Sechak-jeom in the local Janggyo area. Under this data, the basis to take a look at the currently diversified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Janggyo Sechak-jeom has been prepared. And, *Jeongryeolgibyeol Chunhyangga* for lending is the publications lent to people from Sojeong-dong Sechak-jeom. Through this data, it is possible to compare with *Namwongosa* for lending, and it may enable to restructure the issues of the manuscript for lending prior to *Namwongosa*. Lastly, *Hanhuryongjeon* for lending is taken a look as it was the manuscripts borrowed from Hyangmok-dong Sechak-jeom. Through this data, even for the mutually different Sechak-jeom, it is assured that they shared the main text together. Through the detailed review of these data, it is expected to clarify the literature implication of manuscript for lending as well as the publishing cultural implication.

Key words: sechaek(manuscript lending of old novels),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Godamnangjeon, *Geumhyangjeonggi*, *Doanghaeng*, *Wolhagain*, *Jeokseonguijeon*,
Jeongryeolgibyeol Chunhyangga, *Hanhuryongjeon*

1. 서론

2003년에 간행된 『세책 고소설 연구』는 역사서(歷史書)와 문집(文集), 개인 기록으로 전해오던 세책점(貰冊店)과 세책본(貰冊本)을 실제 자료에 의거해서, 세책점과 세책본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실증적으로 논의한 ‘세책본 연구 분야’의 최초 단행본이다.¹⁾

이 책에서 밝힌 세책본의 독특한 외형적 특징은 연구자들에게 일반 자료와 세책본을 구분해 낼 수 있는 근거와 새로운 세책본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다룬 세책본의 세책장부(貰冊帳簿)와 세책 독자들이 남긴 낙서는 세책점의 운영 실태, 세책점에서 보유했던 세책본의 규모와 총량, 당시 세책을 빌려보던 독자들의 실상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동안 연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고소설 유통 연구에 기폭제가 되었다.²⁾

그런데 무엇보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방각본이나 구활자본 고소설의 특성으로 알려졌던 것은 사실은 세책본의 고유한 특성이었다는 사실, 세책본이 방각본과 구활자본의 간행에서 출판의 원고(原稿)로 사용되었다는 점, 각각의 상업출판물은 출간 과정이나 대여 과정에서 서로 협력을 시도하거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이다.³⁾

이러한 ‘세책본’의 전반적인 특성은 2016년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헌 기획 전시였던 ‘조선시대 독서 열풍과 만나다: 세책과 방각본’을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⁴⁾ 그 내용이 중등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반영되어 학생들이 교과과정에서 배우고 있다. 이제 ‘세책본’과 ‘세책점’은 전문연구자들만이 아는 학술영어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 명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책본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연구의 심화가 필요하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세책 고소설 연구』의 경우 간행된 지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후에 새로운 세책본이 여러 종이 발굴되었고, 이 책에서 제시한 주장에 관해서는 재론(再論)이나 보론(補論)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이 글에서 다루려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 검토하지 못한 새 자료를 검토하고 이 자료들이 지닌 의미와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서 세책본의 문학사적인 의미는 물론, 출판문화사적 의미가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1) 이윤석, 大谷森繁, 정명기, 『세책 고소설 연구』 (해안, 2003).

2) 정명기, “세책 고소설에 대한 서설적 이해,”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 정명기, “세책본소설의 유통양상,” 『고소설연구』 16 (한국고소설학회, 2003). ; 정명기, “세책본 소설에 대한 새 자료의 성격 연구,” 『고소설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 전상욱, “세책 총 목록에 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2009).

3) 유춘동, “20세기초 구활자본 고소설의 세책 유통에 대한 연구,” 『장서각』 1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유춘동, “일본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의 성격과 의미,” 『민족문화연구』 6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4). ; 유춘동, “서울대 규장각 소장, 토정-약현 세책 고소설 연구,” 『한국문화』 6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 유춘동, “세책본 소설 낙서의 수집, 유형 분류, 의미에 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45 (열상고전연구회, 2015). ; 유춘동, “일본 교토대학 소장, 세책 고소설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69 (한국서지학회, 2017).

4) 유춘동, 김효경, 『세책과 방각본: 조선의 독서열풍과 만나다』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고전문영실, 2016).

2. 세책 고소설, 새 자료의 서지(書誌)와 성격

『세책 고소설 연구』에서 밝혔던 세책본의 총량은 실본과 세책장부에 기재된 것을 합해서 77종 514책이었다.⁵⁾ 이후 후속 작업을 통해서 세책본의 총량은 계속 늘어났고,⁶⁾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 이유는 국외로 반출된 전적(典籍) 문화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에 존재하는 세책본이 새로 확인된 경우가 있었고, 최근 문학관이나 문학 관련 박물관 등이 설립되면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세책본이 기관으로 매입(買入)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책본은 형태상 필사본(筆寫本) 세책, 방각본(坊刻本) 세책, 구활자본(舊活字本) 세책으로 구분된다.⁷⁾ 이 글에서 검토하는 것은 최근 문학관이나 박물관으로 자료가 이관되었거나 개인이 소장이 확인된 ‘필사본 세책’이다. ‘필사본 세책’은 『고담낭전(古談囊傳)』, 『금향정기(錦香亭記)』, 『도앵행(桃櫻杏)』, 『월하가인(月下佳人)』, 『적성의전(翟成義傳)』, 『정렬기별춘향가(貞烈記別春香歌)』, 『한후룡전(韓厚龍傳)』 7종이다. 이 글에서는 이 순서에 의거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⁸⁾

2.1 세책 고소설, 새 자료의 서지(書誌)

먼저, 7종의 필사본 세책 고소설의 간략한 서지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형태	작품명	소장처/소장자	체제	필사기/필사시기
1	필사본 (筆寫本) 세책	고담낭전	개인소장	1권 1책	을미(1895) 원월 이십오일 살임동[산림동]필서
2		금향정기	한글박물관	5권 5책	세지 갑인(1914) 하스월일 슈진동서
3		도앵행	개인소장	7권 7책 (권5, 낙질)	세계스(1893)동 십일월 금호필서
4		월하가인	한글박물관	2권 2책	세지 신학(1911) 지월일 [내동] 필서
5		적성의전	개인소장	2권 2책 (권하, 낙질)	壬辰(1892)閏月日長橋畢
6		정렬기별춘향가	개인소장	10권 10책	세지 갑신(1884) 정월일 쇼정동 필서
7		한후룡전	개인소장	2권 2책 (권2, 낙질)	세 기학(1899) 남월일 향목동서

5) 이윤석, 大谷森繁, 정명기(2003), 6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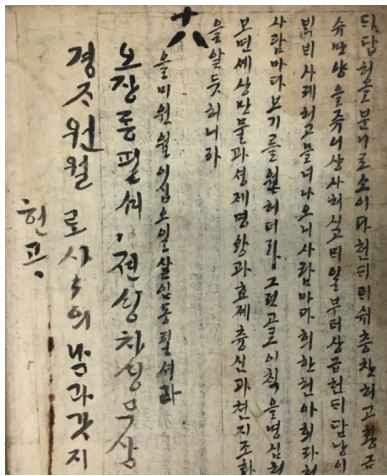
6) 전상욱(2009), 168-172. 이 글에서 총량을 154종이라고 했지만 다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7) 새로운 구활자본 세책으로 하동호 교수의 소장본이 있다. 현재 이 자료는 국립한국문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자료에 대한 검토는 국립한국문학관이 개관한 뒤에 논의하기로 한다.

8) 이 자료들은 한글박물관의 박준호 선생님과 화봉문고 여승구 회장님, 개인 소장자의 덕분에 열람할 수 있었다. 이 글을 빌어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새로 확인된 7종의 필사본 세책 중에서, 5종은 개인소장본이다. 그리고 나머지 두 종은 국립 한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제 각 작품별로 간략하게 각 세책본이 지닌 특징과 성격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2.2 산림동 세책점의 세책본 『고담낭전(古談囊傳)』



<사진 1> 세책본 『고담낭전』

세책본 『고담낭전』은 산림동(山林洞) 일대에서 영업했던 세책점의 대여본이다. 산림동은 조선시대에 현재의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을지로4가, 산림동, 입정동, 인현동1가에 걸쳐 있던 지역의 명칭이다.⁹⁾

세책본 『고담낭전』은 단권으로 되어 있고, 전체 장수는 18장이다. 권수제는 ‘고담낭전’, 본문은 매면 12행, 행 당 16~20자 내외로 되어 있다. 마지막 장에 <사진 1>처럼 ‘을미원월 이십오일 살임동 필서’라는 필사가 있어, 이 책이 1895년 산림동 지역에서 영업했던 세책점의 대여본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담낭전』은 소년 ‘담낭(談囊)’이 어른인 ‘태수(太守)’와 ‘지혜 겨루기’ 문답을 나누다가 소년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설이다. 『공부자동자문답(公夫子童子問答)』과도 내용이 유사한 이 소설은 연구자들에게 조선후기 고소설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아, 작품의 형성 과정, 구조와 의미, 문체적 특징 등을 구명하려는 여러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 소설의 형성과정이나 연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산림동 세책점의 세책본 『고담낭전』은 이 소설의 형성과 연원, 유통의 문제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확인된 『고담낭전』은 모두 15종인데, 이 중에서 세책본은 ‘담낭과 태수’의 주고받는 문답, 『고담낭전』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담낭과 태수의 지혜 겨루기’가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¹⁰⁾

세책본의 본문은 ‘공자(孔子)’에서부터 명왕, 효자, 충신, 영웅, 호걸, 장사, 문장, 명필, 협객, 구변, 소인, 난신, 도술, 지혜, 의량, 궁술, 병술, 검술, 아성, 현인, 농리(農利), 의술, 점술, 화공, 음술(音術), 가무, 도술(잡술), 복술(卜術), 신선, 남중절색, 화초, 수목, 주수(走獸), 폭군, 현군, 현부, 요부, 천하절색, 성군, 암주(暗主), 명관, 탐관, 가도 창성하는 집, 패가망신하는 집, 천지일월 순행, 사시순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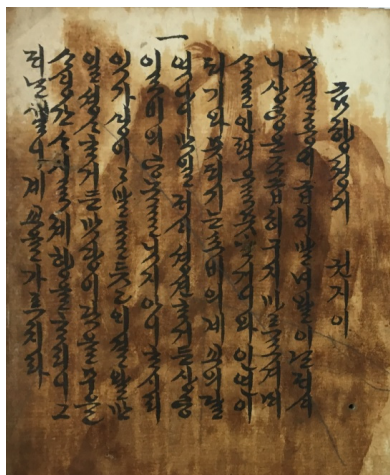
9) 국립중앙도서관 편, 『고지도들 통해 본 서울지명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0). 지역에 대한 설명은 모두 이 책을 따르고 따로 각주를 달지 않기로 한다.

10) 유준동, “『고담낭전(古談囊傳)』의 계통과 서사적 특성에 대한 연구”, 『동양학』 77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9).

풍운조화법, 인간의 탄생, 수요장단(壽夭長短), 부귀와 빈천, 유자(有子)와 무자(無子), 어린 자식과 장성한 자식이 정해진 이유, 천지조화지법'을 화제로 올려 그 연원과 합당한 이치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내용은 당대인들이 알아야 할 지식이나 상식에 해당한다. 세책점에서는 역대 세상 만물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고, 성제(聖帝), 명황(名皇), 효자(孝子), 충신(忠臣) 등의 고사를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세책본을 만들었다. 즉, 어려운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당대인들에게 익숙한 소설, 고소설의 비교적 충실한 서사문법을 가미해서 한 편의 세책본 소설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고담낭전』의 성격과 의미, 서사적 특성은 기존의 견해처럼 설화의 소설화 과정, 민담의 수용과 변용, 문답 양식의 차용에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세책점에서 만든 세책본이라는 관점에서 작품의 생성 문제, 작품의 특징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2.3 수진동 세책점의 세책본 『금향정기(錦香亭記)』



<사진 2> 『금향정기』의 첫 면

『금향정기』는 중국소설 『금향정(錦香亭)』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이 작품은 중국 당나라 현종 때를 배경으로 남녀 주인공 종경기와 갈명화의 결연을 다룬 소설이다. 현재 일반 필사본, 경판본, 세책본, 활판본의 형태로 대략 30여 종의 이본이 있다.¹¹⁾

새로 확인한 세책본은 수진동(壽進洞) 지역에서 영업했던 세책점의 대여본이다. 수진동은 조선시대에 현재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진동 일대 지역의 명칭이다.

수진동 세책점의 『금향정기』는 원래 전체 6권 6책이었다. 그러나 현재 권6이 없고 5권5책만 남아 있다. 권1은 37장, 권2는 29장, 권3은 31장, 권4는 31장, 권5는 33장이며, 각 권의 권수제는 ‘금향정기’, 본문은 매면 11-12행, 행 당 16~20자 내외로 되어 있다.

마지막 장에는 ‘세지 갑인 호스월일 수진동서’라는 필사가기가 있어, 이 책이 1914년 수진동 일대에서 영업했던 세책점의 대여본임을 알 수 있다.

『금향정기』는 세책본 연구에서 중요한 작품이다. 그 이유는 향목동 세책점, 약현 세책점, 남소동 세책점, 아현 세책점과 같은 4곳의 세책점에서, 당대인들에게 대여해주던 세책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서 당대 세책점의 운영 방식과 실태, 세책점 간의 텍스트 공유 방식 및

11) 유춘동(2014), 155-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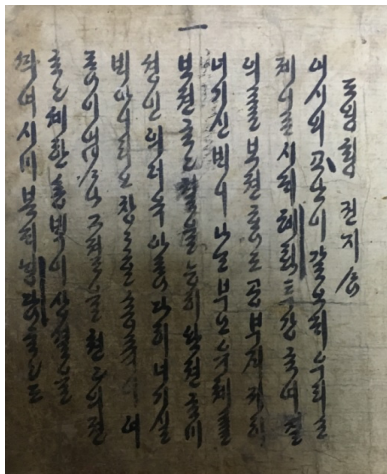
세책본의 제작 방식, 세책본, 경판본, 활판본 간의 관계와 같은 세책본 유통의 실상을 규명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금향정기』는 크게 <경판본 계열>, <세책본 계열>, <기타 계열>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세책본 계열>의 『금향정기』는 중국원전에 가깝게 번역한 것, 경판본을 가져다가 필사하여 대여해주던 것으로 구분된다. 현재 남은 대다수의 자료는 중국원전에 가깝게 번역한 세책본이다. 그리고 경판본을 가져다가 필사해서 만든 세책본도 있다.

수진동 세책점의 『금향정기』는 아현 세책점의 세책처럼 경판본을 저본으로 만든 것이다. 세책점에서 이처럼 방각본 소설을 가져다가 세책본으로 다시 대여해주었던 것은 『금향정기』를 포함해서, 토정 세책점의 『김홍전』, 아현 세책점의 『전우치전』 등이 있다. 이처럼 경판본을 가져다가 세책점에서 다시 세책본을 만든 이유는 경판본을 보고 싶어도 경판본의 가격 때문에 볼 수 없었던 독자를 위하여, 세책점에서 경판본을 베껴 저렴한 가격에 세(貰)를 주었기 때문이다.

수진동 세책점의 『금향정기』가 이번에 새로 확인됨으로써, 당대 유행하는 방각본 자료 등을 가져다가 다시 세책본을 만들어 세책점을 운영했던, 당시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했던 세책점의 운영 전략 등을 볼 수 있다.¹²⁾

2.4 금호 세책점의 세책본 『도앵행(桃櫻杏)』



<사진 3> 『도앵행』의 첫 면

세책본 『도앵행』은 금호(金湖) 세책점의 대여본이다. 금호는 조선시대에 현재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 지역의 명칭이다. 『도앵행』은 두 여주인공이 시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침내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혼사장애(婚事障礙)와 혼사장애의 극복을 다룬 소설이다. 이 작품은 고소설 『옥환기봉(玉環奇逢)』, 『취미삼선록(翠薇三仙錄)』, 『한조삼성기봉(漢朝三姓奇逢)』과 연작 관계에 있으며, 이 소설을 기반으로 『주씨청행록』이라는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금호 세책점의 세책본 『도앵행』은 전체 6권6책 중에서 5권 5책(권5 결본)만 남아 있다. 권1은 32장, 권2는 32장, 권3은 32장, 권4는 32장, 권6은 30장이며, 각 권의 권수제는 ‘도앵행’, 본문은 매면 11~12행, 행 당 16~20자 내외로 되어 있

다. 마지막 장을 보면 ‘세 계스 중동 회간 금호필서, 세 병신 계춘 금호 필서’라는 필사기가 있어,

12) 세책업자가 방각본 소설 제작에 관여했는지의 여부, 그에 따라 방각본 소설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세책본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의 문제는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책이 1893년과 1896년 금호 일대에서 영업했던 세책점의 대여본임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은 장편가문소설, 대장편소설로 분류된 작품으로 몇 종의 이본이 있다. 이본 중에서 선본(善本/先本)으로 알려진 것은 시작 부분의 경우 “화설 념평공주의 명은 빅희니 동한 광무황제 소미 오 티원 처스 주당의 츠뵈니 모친 번부인이 꿈의 한 선녀 왕희의 복식으로 치운 속으로서 느려오를 보고 뵈여 남든 초스의셔 싱흐니”로 되어 있어, 다른 이본과 차별성을 지닌다.

세책본 『도앵행』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해서 기존에 알려진 것들과 대조해 보면 선본에 가까운 이본이다. 세책본 『도앵행』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여주인공이 시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안에 입성하는 내용이 다른 이본보다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대 여성독자들의 취향을 반영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책본은 여성독자의 문제, 여성독자의 취향을 반영한 세책본의 성격 등을 규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5 내동 세책점의 세책본 『월하가인(月下佳人)』



<사진 4> 『월하가인』의 첫 면

세책본 『월하가인』은 내동(內洞) 지역에서 영업했던 세책점의 대여본이다. 내동은 조선시대에 현재 서울 종로구 홍지동 일대 지역의 명칭이다.

내동 세책점의 세책본 『월하가인』은 전체 2권 2책이다. 권1과 권2는 각각 60장, 각 권의 권수제는 ‘月下佳人 월하가인’ 본문은 매면 13행, 행 당 15~20자 내외로 되어 있다. 마지막 장을 보면 ‘세지 신히 지월일 필서, 內洞’이라는 필사가기가 있다. 이러한 필사기에 의해서 세책본 『월하가인』은 1911년 내동 일대에서 영업했던 세책점의 대여본임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월하가인』은 이해조(李海朝)가 지은 신소설이다. 『매일신보(每日新報)』에 1911년 1월 18일에 첫 연재를 시작하여, 같은 해 4월 5일까지 게재가 마무리 되었다.

이후 이 연재물은 보급서관에서(普及書館)에서 1911년 12월 20일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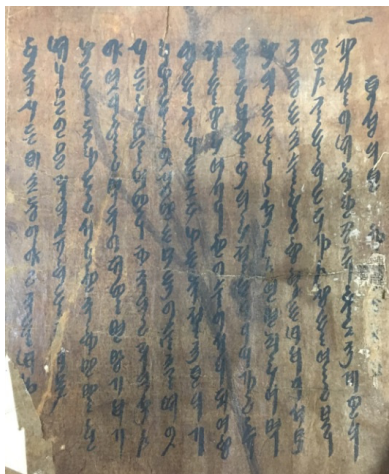
이 소설은 동학란(東學亂)을 계기로 충주에 거주하던 심학서와 부인 장씨가 서울로 상경하면서부터 겪었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루고 있다.

13) 최원식, 『한국 계몽주의 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165. ; 오영식, 유준동, 『오래된 근대, 딱지본의 책 그림』 (소명출판, 2018), 320.

세책본 『월하가인』은 세책업자가 신소설이 간행된 뒤에, 이것을 가져다 다시 필사하여 만든 세책본이다. 세책본은 원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장인물, 표기법, 발화의 구분, 내용의 첨가 및 삭제 등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세책점의 대여 품목에 대한 것이다.

1910년대의 세책점은 당시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신소설(新小說)을 가져다가 전통적인 필사본 형태의 세책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대여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이윤 추구의 목적에 맞게 체계를 적절히 변형하고, 전체 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권(分卷)해서 세책본을 만들었다. 세책본 『월하가인』은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발 빠르게 대처하며 대여 품목을 제작했던 세책업자의 능력을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6 장교 세책점의 세책본 『적성의전(翟成義傳)』



<사진 5> 『월하가인』의 첫 면

세책본 『적성의전』은 장교(長橋)에서 영업했던 세책점의 대여본이다. 장교는 조선시대에 현재 서울 중구 장교동 51번지와 종로구 관철동 11번지 사이, 청계천에 놓인 다리가 있는 일대 지역의 명칭이다.

장교 세책점의 세책본 『적성의전』은 전체 2권2책 중에서 1책(권2)만 남아 있다. 권2는 31장으로, 권수제는 ‘덕성의전’, 본문은 매면 13~14행, 행 당 14~20자 내외로 되어 있다. 마지막 장을 보면 ‘壬辰閏月日長橋畢’이라는 필사기가 있어, 이 책이 1892년 장교 일대에서 영업했던 세책점의 대여본임을 알 수 있다.

고소설 『적성의전』은 주인공 적성의의 부모에 대한 효성, 적성의가 형에 의해 겪는 고난,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왕위에 오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⁴⁾ 이 소설은 당대 사람들에게

게 많은 인기를 얻었고 세책점에서 세책으로 만들어져 읽히기도 했다. 장교 세책점의 세책본 『적성의전』은 이러한 이 소설의 인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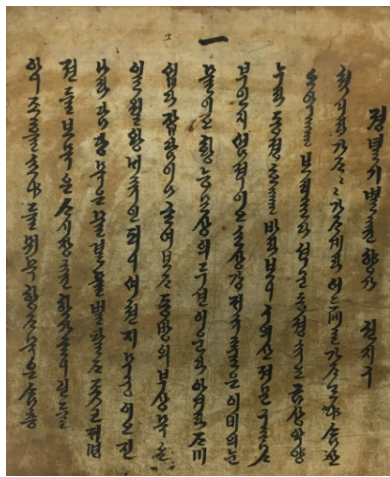
이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장교 세책점의 세책이란 점이다. ‘장교 세책점’의 세책은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임화정연』이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 이 자료를 세책본으로 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한 『적성의전』을 보면 필체가 같고, 세책점의 명칭 또한 동일하다.

14) 세책본 『적성의전』의 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들과 큰 차이가 없으나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검토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따라서 『임화정연』 역시 세책본으로 보아야 한다.

장교 일대는 한양 도성(都城)의 상업 중심지로서, 많은 시전 상인들이 모여 살았고, 중앙과 지방관청의 연락 사무를 맡아보던 경주인(京主人)들의 본거지였다. 그리고 일명 ‘개화파(開化派)’라고 부르던 당대 지식인들이 이곳에 모여 살았다. 장교 세책점의 세책본 『적성의전』은 이 지역에 세책점이 존재했었고, 이들을 상대로 세책점이 성업했음을 보여준다.

2.7 소정동 세책점의 세책본 『정렬기별춘향가(貞烈記別春香歌)』



<사진 6> 『정렬기별춘향가』의 첫 면

세책본 『정렬기별춘향가』는 소정동(小貞洞)에서 영업했던 세책점의 대여본이다. 소정동은 조선시대에 현재 서울 중구 정동, 서소문동 일대 지역의 명칭이다.

소정동 세책점의 세책본 『정렬기별춘향가』는 전체 10권10책 중에서 3책(권1, 권9, 권10)만 남아 있다. 권1은 33장, 권9는 32장, 권10은 37장으로, 권수제는 ‘정렬기별춘향가’, 본문은 매면 11~12행, 행 당 17~20자 내외로 되어 있다.

마지막 장을 보면 ‘세지 갑신 정월일 쇼정동 필서’라는 필사가 있어, 이 책이 1884년 소정동 일대에서 영업했던 세책점의 대여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책본 『춘향전』은 프랑스에 있는 『남원고사』, 일본과 영남대에 있는 『춘향전』, 화봉문고에 있는 『정렬기별춘향가』 등이 있다.

이중에서 『남원고사』는 1864년에서 1869년 누동 세책점에서 필사하여 사람들에게 대여해주었던 세책본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세책본 중에서, 연대(年代)가 가장 앞선 작품이며, 내용 또한 선본(善本)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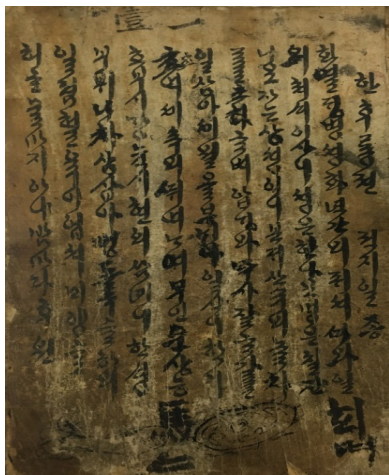
세책본 『정렬기별춘향가』는 필사기만 본다면 세책본 『남원고사』보다 후대의 것이다. 그러나 『남원고사』와 대조해보면 『남원고사』에 없는 내용을 『정렬기별춘향가』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남원고사』에 없는 ‘방자’와 ‘향단’의 이야기, 기타 시조와 가사 등이다. 주목할 것은 『정렬기별춘향가』 본문의 서술이다. 본문을 보면 『정렬기별춘향가』는 당대 광대들의 노래를 가져다가 세책본의 대본으로 썼고, 이 과정에서 표현을 세련되게 고쳤다는 언급이 있다. 이러한 서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세책본 『춘향전』은 원래 ‘광대들의 노래’에서 출발하여, 세책업자에 의해서 다시 세책본으로 제작된 것이다.

한편, 이 책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개인 소장본인 『정렬기별춘향가』가 있다. 이 책은 10권 10책 완전이며, 소정동 세책본 『정렬기별춘향가』와 같은 계열의 자료이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필사시

기가 세책본 『남원고사』보다 앞서며, 내용이나 자구(字句)에서 세책본 『남원고사』 선본(先本)이란 사실이다. 이 자료를 보면 세책본 『남원고사』 이전에 세책 ‘춘향전’의 계통, 유통의 양상의 구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¹⁵⁾

그동안 세책본 『남원고사』는 지나치게 의미가 강조되어 왔다. 그 결과 세책본 『남원고사』 이전에 존재했던 세책점의 세책본 『춘향전』, 세책본 『남원고사』의 생성 배경 등은 논의되지 못했다. 세책본 『정렬기별춘향가』의 존재가 새로 확인됨으로써, 세책본 『남원고사』의 생성 문제는 물론, 세책본의 제작 방식, 세책점 간의 텍스트 공유 방식, 세책본, 경판본, 활판본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규명해 볼 수 있다.

2.8 향목동 세책점의 세책본 『한후룡전(韓厚龍傳)』



<사진 7> 『한후룡전』의 첫 면

세책본 『한후룡전』은 향목동(香木洞) 세책점의 대본이다. 향목동은 조선시대에 현재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 지역의 명칭이다. 향목동 세책점의 세책본 『한후룡전』은 전체 2권2책 중에서 1책(권2)만 남아 있다. 권2는 33장으로, 권수제는 ‘한후룡전 권지이중’¹⁶⁾ 본문은 매면 11-12행, 행 당 17~20자 내외로 되어 있다. 마지막 장을 보면 ‘세 기히 남월일 향목동 서’라는 필사가기가 있어, 이 책이 1899년 향목동 일대에서 영업했던 세책점의 세책본임을 알 수 있다.

『한후룡전』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지닌 한후룡과 임허영 두 사람의 영웅적인 활약을 다룬 고소설이다. 다른 고소설에서는 볼 수 없는 주인공의 특이한 설정으로 주목을 끄는 이 작품은 지금까지 약현 세책점에서 대여해주던 약현 세책본만 확인되었다.

향목동 세책본이 확인됨으로써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약현 세책본과의 비교가 가능해졌다. 약현 세책본은 1892년에 만들어졌다. 두 본을 대조해보면 두 본은 아래 아(·)와 같은 표기 방식에서만 차이가 날 뿐, 자구와 내용은 대부분 일치한다. 위의 자료를 통해서 서로 다른 세책점이라 하더라도 본문 텍스트는 공유하며 영업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15) 세책본 『정렬기별춘향가』를 토대로, 세책본 『남원고사』와의 관계, 이후 만들어진 세책본 『춘향전』, 상업출판물인 방각본과 구활자본과의 관계, 일반 필사본 『춘향전』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는 차후 과제로 넘긴다.

16) ‘권지이중’으로 되어 있으나 세책을 빌려간 대여자들이 ‘이’를 ‘일’로 고쳐놓았다.

3. 마무리와 과제

지금까지 새로 확인한 필사본 세책 7종의 서지와 텍스트가 지닌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산림동, 수진동, 내동, 장교, 소정동 세책점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 세책점들은 모두 서울 중구, 종로와 같이 당대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많았던 곳에 위치해 있다. 이 세책점들은 <사진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여 영업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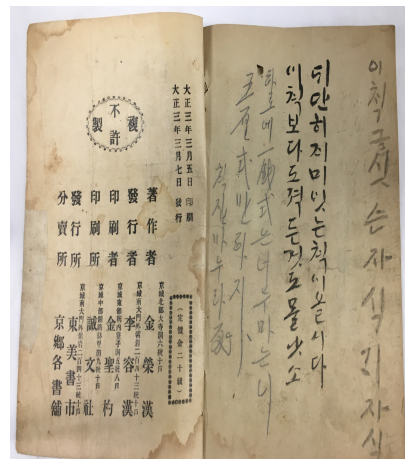
다음으로 『고담낭전』, 『도앵행』과 같은 고소설이 세책점에서 만들어지고 당대 사람들에게 대여해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월하가인』처럼 신소설을 전통적인 형태의 ‘필사본 세책’으로 만들어져 대여했다는 사실, 『금향정기』처럼 방각본을 가져다 다시 베껴서 세책으로 대여했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세책본 『정렬기별춘향가』이다. 지금까지 『남원고사』를 선본(善本/先本)으로 판단하여, 세책본, 경판 방각본과 완판 방각본의 생성 문제 등을 다루었다. 그러나 『정렬기별춘향가』의 존재가 확인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재고(再考)가 필요해졌다.

한편,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새 자료 세책본이 있다. 그것은 <사진 9>와 같은 구활자본 세책이다. 2022년에 개관하는 국립한국문학관에는 고(故) 하동호 교수의 유가족이 기증한 다수의 구활자본 세책이 있다. 이 구활자본은 모두 1910~1920년대 구활자본만을 전문적으로 대여해주었던 세책점의 대여본이다. 차후 이 자료에 의거하여 구활자본 세책의 유통, 구활자본 세책의 특징을 다루기로 한다.



<사진 8> 세책점의 추정도



<사진 9> 국립한국문학관 소장 세책 구활자본의 예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고지도를 통해 본 서울지명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0.
- 오영식, 유춘동. 『오래된 근대, 딱지본의 책 그림』. 서울: 소명출판, 2018.
- 유춘동. “『고담낭전(古談囊傳)』의 계통과 서사적 특성에 대한 연구.” 『동양학』 77(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9). 1-13.
- 유춘동. “서울대 규장각 소장, 토정-약현 세책 고소설 연구.” 『한국문화』 66(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147-167.
- 유춘동. “일본 교토대학 소장, 세책 고소설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69(한국서지학회, 2017). 327-344.
- 유춘동. “일본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의 성격과 의미.” 『민족문화연구』 64(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4). 283-309.
- 유춘동, 김효경. 『세책과 방각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고전운영실, 2016.
- 이운석, 大谷森繁, 정명기. 『세책 고소설 연구』. 서울: 해안, 2003.
- 정명기. “세책 고소설에 대한 서설적 이해.” 『고소설연구』 12(한국고소설학회, 2001). 445-480.
- 정명기. “세책본 소설의 유통양상.” 『고소설연구』 16(한국고소설학회, 2003). 3-10.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ung, Myungkee. 2001. “An introductory explanation about manuscript old-novels for lending.” *The Korean Classical Novel*, 12: 445-480.
- Chung, Myungkee. 2003. “The trade of commercial lending of hand written novels through the account.” *The Korean Classical Novel*, 16: 3-10.
- Lee, yoonsuk, MorishigeŌtani & Chung, Myungkee. 2003. *A Study on the sechaek*. Seoul: Hyeon.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0. *Study on place names in Seoul through the old map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Oh, yongsik & Yoo, Choondong. 2018. *The Book Painting of Old Modern Ddakjibon*. Seoul: Somyoung publish.
- Yoo, Choondong & Kim, Hyokyung. 2016. *sechaek and Banggakbon*.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Yoo, Choondong. 201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Possessed by the Oriental Library Lending Library Manuscrip." *Korean Cultural Studies*, 64: 283-309.
- Yoo, Choondong. 2014. "A Study on the Tojeong-Yakhyeon sechaek (book rental) Old Novels Possessed by the Kyujanggak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Studies*, 66: 147-167.
- Yoo, Choondong. 2017. "A Bibliographic Analysis on the Classical Novels for Rental which Kyoto University has in Japan."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9: 327-344.
- Yoo, Choondong. 2019.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GodamNangjeon." *The Oriental Studies*, 77: 1-13.